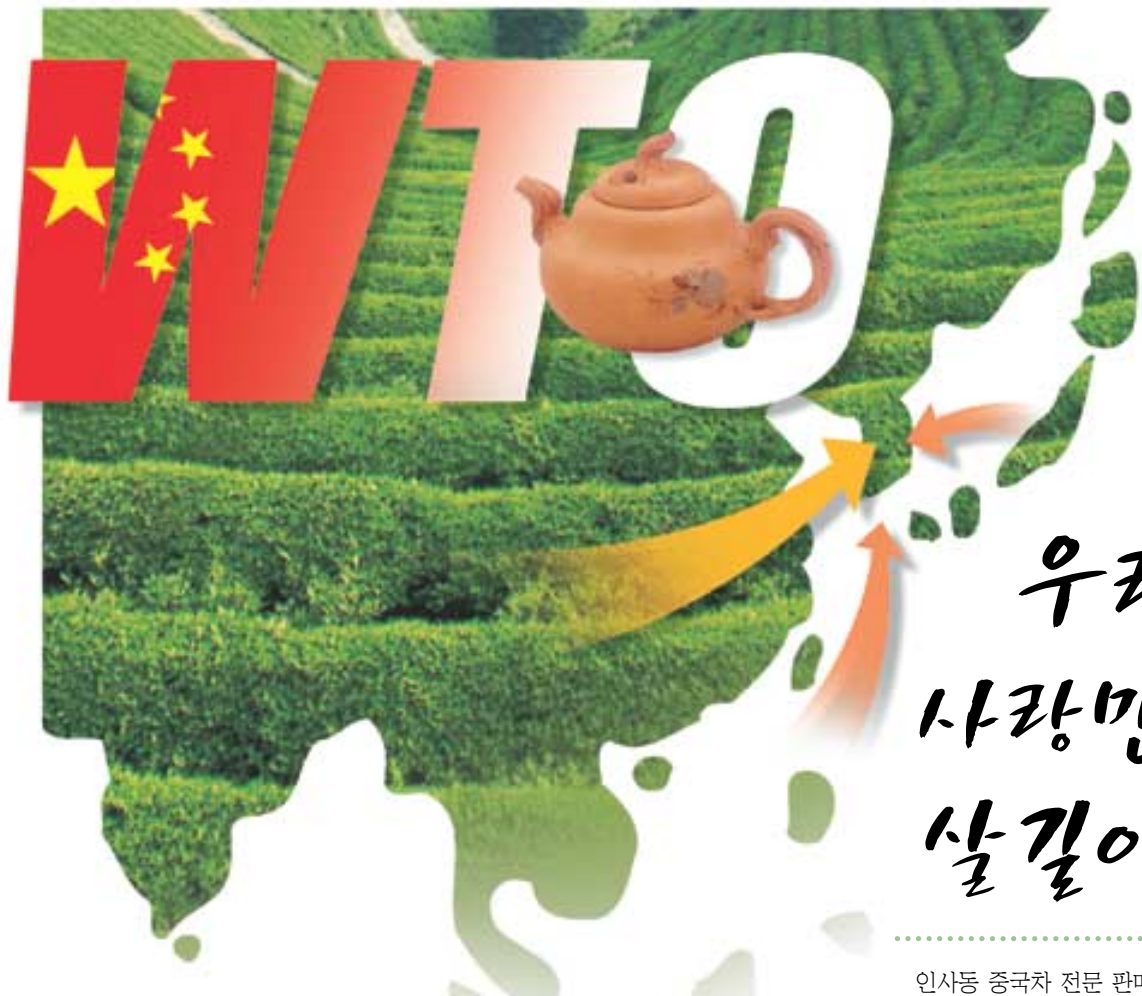


## 외국차가 몰려온다

① 차 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② 건전한 차문화 형성을 위한 제안



## 우리차 사랑만이 살길이다

보이차, 철관음, 대홍포... 굳이 차인이 아니라도 한번 뜯어봤을 중국차의 이름이다. 최근 외국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수입되고 있다.

1980년부터 조금씩 일기 시작한 외국차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됐다. 이때부터 조금씩 홍종,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이차와 오롱차가 국내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우라센케 등의 각 다도유파들이 국내

이후 10여년 동안 국내 차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차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발효차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차시장의 여건상 차인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외국차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수십 여 개의 외국차 전

인사동 중국차 전문 판매점 백련다다의 이춘화(34) 대표는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차나 대만차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주말에는 일반인들도 중국차와 다구에 대해 배우러 오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도의 외국차가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차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WTO 농산물 시장 개방은 외국차에 대한 열기를 더욱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은 곧 차에 대한 관세를 이 낮아져 외국차가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뜻한다. 지금까지 쿼터내 40%, 쿼터초과 500% 이상의 높은 관세율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었던 외국의 차가 시장이 개방되는 7월 이후부터는 더욱 많이 수입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연 생산량은 2천 톤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차값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5~10배 정도 비싼 국내 차시장의 현실은 생산량과 질 면에서 외국의 차와 경쟁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현재 질 나쁜 차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가 외국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좋은 차'를 선별하는 기준은 가격이나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일부 차 수입상들은 질이 나쁜 차를 '40~50년 된 보이차'로 둔갑시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차를 마시는 용기인 다구의 수입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다기인 자사호(紫沙壺)는 중국차의 수입 증가에 따라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1~2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다구들은 '중국 의흥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사로 만든 다기'라는 뜻의 자사호가 아니라 '색깔과 무늬만 자사호'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전문 매장의 경우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나쁜차 판별 능력 부족 문제 자료 공유 통한 전문지식 필요

인터넷 차 판매 사이트 '중국차 즐기(www.teancha.com)' 손성구(42) 대표는 "차사호는 1200도 이상의 불에서 소성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아 차를 마실 때 녹아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인사동 차전문매장 '훈'의 양영년(50) 대표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다구나 차가 무조건 나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 이하의 제품일 경우가 많다"며 "이들 다구는 소성 과정에서 유약이나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차 소비자들만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 소비자들만 상인들의 기적이 나 마케팅, 그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 스스로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대 차학전문 정인오(42) 주임교수는 "값싼 외국차가 밀려들어오는 이 시기를 위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녹차 대중화 운동과 우리 차문화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차문화의 계승과 전승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지원이나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차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차문화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종 개량을 비롯한 차나무 연구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수령 기자snoopy@buddhapia.com

## 우리 사찰 차 모임

통도사 부산포교원  
여란다회

## 사상·학문적 체계화 중점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 회원들은 매년 봄 일일 표창사 춘계향사에서 헌다례를 봉행한다.

1985년 故 원광 스님을 주축으로 창립된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회장 홍순창)가 성년의 해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여란다회의 방향점은 어느 다회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강조하고 다법에 중점을 두는 차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차의 여러 가지 순기능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했다. 다도시연 등을 통한 차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과제로 다른 노력, 이 각종 차 행사 해외홍보 열심 전회원 강사화로 차인 육성

원들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89년 원광 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여란다회는 93년 통도사부산포교원내에 등지를 틀면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55기가 수임중인 기초반에서는 다도에 대한 기본예절 뿐 아니라 차발 견학, 둔치요 견학 등을 진행하며 5백 여명을 넘는 차인을 배출했다.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로 자리매김하면서 통도사 부산포교원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했다 시연회와 차 겨루기 행사를 열

고 한국차인 연합회, 부산차인 연합회에도 가입했다. 특히 통도사부산포교원 산하 단체인 한나래문화재단에 소속되면서 활동의 폭은 한결 넓어졌다. 부산 시민을 위한 차 잔치 마당 및 화전놀이를 주최하는가 하면,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우리 차와 다식의 맛과 멋을 알리기도 했다.

99년 원광 스님 제 10주기 추모재를 지낸 여란다회는 원광스님의 차 정신을 되살리기를 여란다회의

향후 과제로 꼽는다. 원광 스님의 차 정신을 재조명하고 차의 뿌리를 찾아가는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 상반기경,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 보다 다양한 차문화를 접하게 된다. 또한 전 회원의 강사화를 추진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차인을 육성하고 전 국민의 건강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기 멋에 빠지지 않고, 차를 통한 자기 표현의 토대 위에 대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차인" 이것이 여란다회 회원들의 차 정신이다.

천미희 기자

## 인터뷰

### 홍순창 회장



### 차의 순기능 조명이 대중화 지름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조절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차입니다. 차가 갖고 있는 순기능은 중도(中道)의 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의 홍순창(46) 회장은 녹차의 기능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 홍 회장은 58년 차 불모지에서 차를 만드는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차를 접했고 20대 중반에 차 생활을 시작했다. 차의 기능을 연구하고 알려내는 일에 남

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차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홍회장은 "차의 순기능을 조명해내는 노력은 곧바로 차의 대중화로 이어지며 그것은 국민의 심신 건강의 중심에 차를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차 정신과 규범을 정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여란다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 사찰전구 (정품)

- ▶ 불계 고주전구, 인자전구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돌이, 방쟁) 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 2266-2634 [02]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11) 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 일산에서도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茶인들이 즐겨 찾는

#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 인급, 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 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 청차, 말차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연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 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 자세한 문의나 주문은 전화나 이메일로 해주세요!